

# 남원시, 예산확보 부처 방문 '성과'

### 출장결과보고회 개최... 73건 요구액 1006억원 긍정적 답변 얻어

남원시가 국가예산확보를 위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에 201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발굴을 마무리하고 국가예산 확보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하며 모든 실과소가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시는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모든 실과소장이 2일부터 8일까지 중앙부처 일제출장을 실시하고 10일에 이환주 시장 주재로 출장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출장결과 보고회는 68건의 신규사업과 35건의 계속사업 등 총 103건의 사업에 국비 1,285억원 지원을

전한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환주 시장은 연초부터 국가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규 사업발굴과 중앙부처방문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어 다른 해보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의 이러한 노력으로 지리산 산악철도사업도입 등 73건(요구액 1,006억원)에 대하여 중앙부처로부터 국비지원 가능성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남원시는 앞으로 나머지 노력필요사업에 대하여도 사업 타당성을 보장하여 재차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이환주 시장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담당직원과 실과소장은 긴장감을 가지고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남원시는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처 예산에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단계, 국회의 예산심의 단계까지 전북도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제97주년 3·1절과 함께 초등학생이 주축이 되어 조국 독립을 위해 펼쳐 일어난 3·10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재현행사가 일출군 오수면에서 개최됐다.

# 임실 '3·10만세 운동' 기념식·재현행사

### 오수면에서 시가행진 등 열려... 500여명 참가

제97주년 3·1절과 함께 초등학생이 주축이 되어 조국 독립을 위해 펼쳐 일어난 3·10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재현행사가 임실군 오수면에서 개최됐다. 임실군과 오수향회의소 주최로 임실군수, 전주보훈지청 관계자를 비롯해 기관단체장 및 학생, 독립유공자, 군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독립을 위해 한겨울 선열의 충정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이날 기념식은 오수면 3·1동산 참배를 시작으로 독립선언문 낭독, 기념사 및 축사, 시가행진, 3·10만세 재

현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특히, 백제예술대 방송연예과 학생들은 일제강점기 핍박과 고난, 광복의 기쁨 등 3장으로 구성된 연극 공연을 통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려 나라를 지킨 선열들의 모습을 재연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체험하는 산 교육의 장이 마련됐다. 심민 군수는 축사에서 "임실은 예로부터 충과 효를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겨왔다"며 "3·1운동 89년 중 한분인 박준승 선생을 비롯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을 희생한 분이 깃 들어 있는 지역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수는 초등학생들이 나라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벌인 전국 최초의 지역"이라며 "오늘 하루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수 3·10 만세운동은 오수보등학교 교사였던 이광수 선생이 주축이 되어 오수지역에서 전개된 학생 독립운동으로 장수와 남원 등 인근 주민 1,000여명이 오수 주재소 습격과 만세운동을 펼친 후 대대적인 3·1운동으로 승화됐으며, 이후 오수는 학생 만세운동 전국 10대 의거지로 선정돼 대표적인 독립운동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취약계층 아동 40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130가구 245명 대상... 2억 8000여만원 투자

순창군이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건강·보육·복지 등을 위한 40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취약계층 130가구 245명을 대상으로 40개의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관련 예산으로 총 2억 8000여만원을 투자한다. 군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건강검진, 영양교육, 자치활동 양육 등 15개 프로그램이 포함된 필수서비스와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지원, 보육 및 교육 등 25개 사업이 포함된 맞춤형 서비스다.

필수서비스는 주로 아이들의 건강검진 사업과 예방접종, 가족상담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맞춤형서비스는 총치치료, 안경지원 등 보다 세부적인 신체건강서비스는 물론 가족과 함께 영화관람, 스포츠경기 관람 등 저소득층 자녀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돕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위기가정 구성원이 전문 심리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알고 해결해가는 가족상담 치료 프로그램과 여러 매체를 통해 올바른 심리 정서를 지원해주는 놀이 치료는 부모들의 참여도가 높아 벌써 인기가 치솟고 있다. 이밖에도 기초학

력검사를 찾아가는 언어치료, 기초실력 다지기 등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학업성취도 도와 저소득층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아동복지관 협의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드림스타트 지원은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이 많은 순창에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의미있는 사업이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적극 발굴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구인규 기자

# 고창군, 소과종 수박 정식 시작

### 료알블랙 품종 시범 재배 위해 지난달말부터 28 농가 대상

고창군이 소과종 수박 육성을 위한 수박 정식에 들어갔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지역 내 28개 수박농가(9ha)를 대상으로 소과종 흑과회피무늬의 료알블랙 수박 품종 시범 재배를 위한 정식에 들어갔다. 군은 이번 시범 재배를 통해 1인 가

족과 핵가족 시대에 크기가 작은 수박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수박구매 패턴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수박구매 패턴을 분석하고 수박 브랜드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소과종 재배에 앞서 유통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마치고 출하시기에 맞춰 소비자 대상 홍보홍보 행사 등을 통해 집중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단한에 일반 소과종의 단점인 열과에도 강한 수박으로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한 맞춤형 수박생산으로 유통시장을 주도하고 수박 브랜드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소과종 재배에 앞서 유통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마치고 출하시기에 맞춰 소비자 대상 홍보홍보 행사 등을 통해 집중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지리산권 전통문화 돌레보고 체험(무대프로그램·스텝퍼이벤트)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내나라여행박람회 참가

### 등산로·돌레길 정보·대표관광지·연계상품 등 소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하 조합)은 한해 국내여행의 새로운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코엑스홀 C, D에서 개최되는 '2016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 다양한 지리산권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가 주관해 매년 열리고 있는 이 행사에서 조합은 지난해 3개도(전남, 전북, 경남)와 7개 시·군(남원 장수 곡성 구례, 하동, 신창, 함양)과 함께 공동으로 참가했다.

남원 춘향제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남원시 관현루 및 요천 일원에서 펼쳐진다. 내나라여행박람회에서는 이루어 지리 페이퍼피규어 만들기, Let's go! 지리산권, 페이스북 피켓과 같은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퀴즈와 경품이 준비되어 있다. 지리산권의 특색이 각각 다른 지역들을 개인의 특성 및 취향에 따라 다양한 연계관광코스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인 '지리산권 내나라여행박람회'에서 조합은 지리산 등산로와 돌레길 정보를 '지리산 돌레보고 앱'을 통해 입체지도, 오디오 가이드 형식으로 소개하며 이와 함께 지리산 주변 관광지 숙박 및 맛집 안내, 이 야기 여행, 긴급구난 등도 소개한다.

조합은 이번 박람회에서 7개 시·군의 특산식품인 7품7미를 선보이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또한 '지리산의 소리' 남원의 '너울' 팀에서 판소리 공연을 펼치고 판소리 배우기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특히, 오는 5월 열리는 88년 전통의 남원 춘향제를 중심으로 남원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인근 지리산권 지역 관광지와 연계 코스를 소개하고, 새로운 지리산여행의 패턴을 소개한다.

한편, 조합의 조지환 본부장은 "부담하지마자 치르게 되는 행사이지만, 알차게 준비해서 2016년 한해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지리산권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 조합은 앞으로도 지리산권 순환버스 추진, 외래관광객 유치에 위한 해외 마케팅 사업, 지리산권 7품 7미 육성 등을 통해 등 7개 시·군의 공동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군 고창읍,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고창군 고창읍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및 교육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고창읍은 9일 고창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가운데 화합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발대식과 교육 시간을 마련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저소득 고령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

동을 지원해 건강개선과 사회적관계 증진 및 소득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고창읍은 올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총 154명의 어르신들이 9개월간 고창읍 관내 근린시설주변 환경개선공사에 참여하게 된다. 신학준 읍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시, 버스승강장 11곳 태양광 조명 설치

남원시는 야간에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 11곳에 태양광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태양광 조명은 버스승강장 지붕에 태양전지 모듈을 설치하여 낮에 발생한 전기를 축전지에 저장했다가 야간에 활용한다. 남원시는 야간에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여성들이 안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로등이

없는 우범 지역이나 다중이용 승강장에 우선적으로 태양광 조명을 설치하기로 했다. 무한 녹색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효과는 물론 가로등이 없는 농촌지역을 밝게 비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버스승강장 63곳에 태양광 조명을 설치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역특성

## 남원보건소, 저소득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남원시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의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이하 영아(0~12개월) 가정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 판정 후 기저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 정액 지원하며 구매방법은 오프라인은 나들가게, 온라인은 우체국 소포물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이유식 포함) 구매 후 국민행복카드(금융기관 발급카드에 비우려 지원금 결제기능이 추가된 형태)을 제시하고 지급금액 총액 내에서 사용하면 된다. 지원기간이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12개월 모두 지원 가능하다.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남원이고 신청자격이 되는 만 1세 미만 영아 가정은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남원시보건소 1층 모유수유실(☎620-7955,7942)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군보건의료원, 65세 이상 연중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 매년 집중하는 인플루엔자 집중과 달리 폐렴구균 예방접종(23가 다당질백신)은 65세 이상 연령에서 평생 한 번 접종으로 폐렴증, 뇌수막염 같은 심각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폐렴구균'은 콧물이나 한자가 기침할 때 튀는 분비물(비말)로 전파되며, 이로 인한 감염증은 통상 11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폐렴구균이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되며, 특히 노년층의 경우는 폐렴증 등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20~60%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방접종 문의는 650-5262번으로 하면 된다. /순창=구인규 기자

## 남원시, 후계농업경영인 35명 선정

남원시는 미래 농업·농촌의 주축이 되고 농업 발전을 이끌어야 할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35명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은 남자 25명, 여자 10명이며, 연령별로는 20대 5명, 30대 6명, 40대 16명, 50대 8명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차세대 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창업 및 농업을 기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예비농업인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만 50세 미만이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이고, 영농에 종사한 경험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는 농업인 등 기준과 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됐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은 농지구입, 농업용 시설 설치, 축사부지 구입 등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2%로 지원된다. 또한, 후계농으로 선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시 교육비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신청시 우선선정의 혜택이 있으며 후계농으로 선정되고 5년이 지나면 1인당 2억원까지 연리 1% 8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우수농업경영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남원=유영철 기자